

SK유화, 울산서 초산 2톤 누출사고

PTA 파이프라인 파손이 원인 ... 초산 기체 마시고 26명 호흡곤란·구토

SK유화의 울산공장에서 초산(Acetic Acid)이 2톤 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.

8월11일 오전 8시50분 경 SK유화 울산공장에서 PTA(Purified Terephthalic Acid) 파이프라인이 파손되면서 초산 슬러지 2톤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인근 신항만에서 작업하던 이모씨 등 26명이 바람을 타고 날아온 초산 기체를 마시고 호흡곤란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가벼운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.

SK유화 관계자는 “배관 연결부위(프렌지)의 개스킷이 손상돼 그 틈으로 초산이 샌 것 같다”며 “바로 개스킷을 교체했고 현재 정상가동 중”이라고 말했다.

초산은 농도가 짙은 증기를 들이마시면 기관지에 손상을 입고 심하면 호흡부전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무색 액체이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SK유화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11>